사 설

재가불교 인력양성 '환영'

재가 불자들의 운동이 불교 전문인력 양성에까지 그 힘을 뻗쳤다. 그 동안 참신한 재가불자 운동으로 불교계에 바람을 일으켜 온 참여불교 재가연대가 부설 교육기관으로 참여불교 아카데미를 이달 31일 발족시키고 그를 통해 불교계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불교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 동안 승속의 조화로운 협력을 위해 불교 종단운영 등에 재가불자의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시행되었던 일들은 있었다. 이에 비해 이번 재가연대의 전문인력 양성 계획은 분명 차원이 다른 새로운 걸음이다. 승단에 협력하는 수준으로의 참여를 요구하던 소극적인 자세를 벗고, 승속을 뛰어넘어 미래불교를 이끌어 나갈 핵심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는 대승적인 선회를 이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가불자 운동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은 물론이요 불교계의 앞날에 희망의 빛을 던지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불교계의 현황을 보면 이번 일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선구적인 여러 전문 영역들은 한정된 소수의 의식있는 이들의 희생적인 활동 위에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는 커녕, 이 분야에 앞선 타 종교의 운동 모델을 뒤따라가기에 힘겨울 지경이다. 정확하게 이 맥을 짚어내고, 구체적인 계획 아래 과감한 실행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불교계의 의식을 한 차원 높이며, 불교운동의 올바른 방향타를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이 올바른 방향타에 불교계의 힘이 실려져야 한다는 점이다. 승속을 뛰어 넘어 이 사업이 불교계를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결실로 드러나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음지에서 희생적으로 활동해온 선구적 전문인들이 힘을 얻고,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많은 후배 전문 인력들로 미래 불교가 아름답게 장엄되도록 하는 일에 불교계와 모든 불자들이 나서야 한다.

불교문화의 대사회 저력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나 국가의 언어 · 종교 · 관습 등의 총화다. 좁게는 문학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를 일컫기도 하고, 종교문화나 언어문화와 같은 하위 범주 설정도 가능하다. 또 다른 각도에서 '교통문화' 또는 '행락문화' 등과 같은 표현을 쓸 때는 '삶의 양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처럼 '문화'라는 말의 의미는 다중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문화라는 말의 다의성이 아니라 문화의 여러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종교의 경우는 도덕이나 사상은 물론 예술 영역에까지 넓고 깊게 영향을 끼친다.

누구나 알고 있듯 160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불교는 한국 문화의 전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쳤다. 유형문화재의 60%가 불교 문화재일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그 영향은 쉽게 확인된다. '야단법석'이나 '이판·사판', '화두'와 같은 말들도 불가에서 나왔다. 사찰건축이나 불교미술 분야는 우리 전통 건축과 미술의 맥을 잇고 있다. '한국 문화 정체성의 고갱이는 불교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불교 문화의 전통이 인류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다시 꽃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2002년 월드컵 개막 기념 공연으로 팔만대장경의 조성 동기와 과정을 그린 '고려의 아침'이 총체음악극이라는 형식으로 세계인을 맞는다. 특히 핵심적인 메시지가 '평화'라고 하니, 광기와 폭력의 세기로 기록될지 모를 21세기의 우울한 시작을 희망으로 돌려놓을 계기가 되기를 발원해 본다.

또한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재현한 영산재가 세계 곳곳의 무대에 서고 있고, 석정 스님의 탱화와 만봉 스님의 단청 작업 과정이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기록 사업의 일환으로 영상에 담기고 있다고 한다.

문화는 삶의 표현이자 그릇이다. 따라서 삶과 유리된, 삶을 고양시키지 못하는 화석화된 문화는 골동품보다 썩 나을 게 없다. 삶과 얼을 담아내야 된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의 불교·문화는 그것을 해 내고 있다.

동화사·월정사·조계사 등 '역사 재조명' 세미나

정체성 찾기 나섰다

사찰 위상 높이고 역할 정립 기대

송광사 동화사 월정사 조계사 화엄사 등이 해당 사찰의 역사와 인물, 사상 등을 조명하는 한편 지역 문화에 끼친 영향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사찰 정체성 찾기에 나선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주지 성덕)는 개산1508주년을 기념해 법륜불자교수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동화사 대불전에서 '동화사의 역사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화사 가풍과 종지, 역사와 문화, 인물과 사상, 풍수 및 가람의 특징 등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화사의 특징을 재조명함으로써 사찰 위상을 높이고, 대구 · 경북 시민들의 정신적 구심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평창 월정사(주지 현해)는 12일 오대산 호텔에서 '강원도 불교문화재의 종합적 검토'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강원도의 문화 · 학술적 가치와 그 속에서의 불교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강원불교의 의미'를 비롯해 상원사와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서적 · 조각 · 회화 · 공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조계사(주지 지홍)도 창건 92주년 및 조선불교조계종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24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조선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 조계종 출범의 역사적 의미 고찰을 통한 종단 정체성 확립과 한국 대표사찰로서의 위상 점검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광식씨(대각사상연구원)가 '조선불교조계종 출범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박희승씨(조계종 총무원 기획과장)가 '조선불교조계종 창립의 주역 연구', 손성 교수(동국대)가 '조선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또한 순천 송광사(주지 현봉)는 송광사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던 보정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14일 사자루에서 개최하고, 구례 화엄사(주지 종걸)도 26일 각황전에서 '화엄석경 보존 복원 학술세미나'를 열고 보물 1040호로 지정된 화엄석경의 보존과 복원방안을 모색한다.

이같은 일련의 행사와 관련해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는 "1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사찰들은 수행도량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과 한국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전제하고 "그 역사를 불교와 문화적 측면에서 조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스님 최소한 소유 인정"

승가복지 워크숍 이색주장

시대에 따라 소유개념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스님들에게 무소유는 적절하지 않고, 소유의 최소화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재가연대가 5일 포교원 회의실에게 개최한 '교단 경제윤리 및 승가복지 제도화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제에 나선 권경술 새생각실천회 대표는 "소유의 범위를 가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는 개개 승려들의 소유 격차가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승가 소유 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분배구조 취약"

"사찰 법인형태 운영"

권씨는 그 대안으로 △승가의 공동소유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승가공동체 존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재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 법력으로 인정받는 지도자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도제양성을 승가공동소유물로 부담함으로써 돈으로 연결되는 사제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상의 가르침이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무한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승려야 말로 자본주의를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 권씨는 승려가 자본주의 시대에 능력을 발휘해 축적한 부는 승가전체의 소유물로 귀속시키되 우대조치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따라서 생활과 수행에 필요한 재물을 절대 평등하게 배분하되, 법력을 인정받는 승려에게는 우대조치를 해야 한다는 '절대 평등 내에서의 상대적 차등'론을 제기했다.

한편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조계종단의 재정 수입구조나 관리 및 분배구조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대만의 자제공덕회처럼 사찰이 '공익법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사회적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숙 종교사회복지연구소장은 "스님들의 복지는 최저생활과 교단이 존속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교육 · 의료 등 모든 스님복지와 관련한 재정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명우 기자

문화축제로 환생하는 보우스님

봉은사 17~25일 인경 · 방생 · 전시행사

봉은사가 허응당 보우 스님의 뜻을 기리고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불자와 시민에게 일깨우기 위해 17일부터 25일까지 제9회 보우제를 개최한다.

올해 보우제는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이라는 것이 특징. 먼저 17일 진행되는 '생명방생' 행사에서는 사중 스님과 종무원 및 신도회 임원, 신도 및 일반인들이 참여해 헌혈과 장기기증 서약을 하게 된다.

보우제 기간동안에 열리는 도자기 체험전에서는 봉은사 인근 초중고생들과 외국인까지 참여해 직접 도자기를 빚으며 우리 자기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인경전시 및 체험전에서는 불교 인쇄물의 역사를 살펴보고 직접 인경을 함으로써 불심을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전통등 체험전 역시 팔각등 연꽃등 등 전통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명우 기자

진각종 가을 스승 강공

18·19일, '스승상정립' 주제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8-19일 양일간 서울 성북구 총인원에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정사 · 전수 정교 등 모든 교역자들이 참가하는 진기 55년도 가을 스승강공을 봉행한다.

'진각 스승상 정립'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가을강공은 혜정 교육원장의 주제강연에 이어 지광 종사의 '회사금의 정신', 도혼 종사의 '교법실천과 수행법' 등의 강좌가 있게 된다.

특히 진각종은 이번 강공을 통해 반세기가 넘는 종단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은 물론 시대변화에 맞춰 종단상을 정립하고 참스승상을 확립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가을강공에서는 또 각종 불사의식의 통일성을 확립하기 위해 각 교구청별로 1인을 선정하여 각각 30분씩 공식불사 의식을 집전토록 하는 공식 불사의식 시간도 마련된다. 가을강공에 이어 19일 오후 2시 30분 총인원 대강당에서는 선대스승 추선불사도 함께 봉행된다.

한편 총지종(통리원장 혜암)도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 총지사에서 제58회 추계강공을 개최한다. 총지종은 이날 강공에서 사회복지재단 이사회를 비롯 원의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여는 한편, 선대열반스승 추선불사도 봉행할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

고침 지난 10월 3일자(337호) 1면 머릿기사 제목중 '국빈방문'을 '정부초청 방문'으로 바로잡습니다.

환경·종교편향특위 포교사단 이달 구성

포교사단은 최근 수덕사에서 제3차 중앙운영회의를 열고 환경특별위원회와 종교편향대책특별위원회를 이달중 구성키로 결의했다.

포교사단은 팀이 구성되는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한편, 환경위원회의 경우 월1회 모임을 정례화하고, 년 1회 이상 환경관련 정기 강좌를 개설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관련단체와 교류를 추진하고, 환경관련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등 환경을 통한 포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축하합니다

달마스님 철학 강좌

"시간과 운명"의 진리를 저술한 "달마대사의 사주비전" 저자 달마스님 초청 특강

達磨스님이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達磨大師의 四柱秘傳」

定價 35,000원

목 차 -
1. 우주의 기운
2. 역의시원
3. 시간과 운명
4. 사주분석과 해석
5. 인연법
6. 작명비법

부 록
作名法(좋은 이름 짓는 비법)
大法院 人名用 漢字 2,962字 수록

前 韓國易學 哲學評論家
韓國公社 理事 歷任
交通저널 編輯局長 歷任
韓國易學 編輯局長 歷任
現 大韓佛敎 達磨布敎院 院長
저서 時間과 運命
僧侶와 菩薩心
부처님의 因緣法
達磨대사의 四柱秘傳
達磨大師의 禪과 명상법
外 다수 집필

· 서 울 : 기업은행 012-027395-01-017
· 부 산 : 기업은행 097-034764-01-014
예금주 달마사 (입금후 전화 주십시오)

卍 達磨寺 051-301-4949 011-301-4949

특강과목 지혜의 문을 열어 드립니다 — 불교와 철학 • 인생상담 비법 전수 • 운명학 원론 • 한국의 풍수 [양택,음택]

강의시간 지혜의 문을 열어 드립니다

지역 구분	강 의 기 간	요 일	강 의 기 간
서 울	매월 1일부터 2개월간	매주 월	오후 2:10~4:10
안 동	매월 2일부터 2개월간	매주 화	오후 2:10~4:10
부 산	매월 3일부터 2개월간	매주 금	오후 2:10~4:10

※ 본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강의대상 지혜의 문을 열어 드립니다 — 전국 사찰 주지스님 및 승려 [비구니]
각종 불교대학을 이수한 불자 및 일반인 男.女

수 강 료 지혜의 문을 열어 드립니다 — 2개월분 강의료 [총 40만원]
※ 입금후 전화 요망

접수마감 지혜의 문을 열어 드립니다 — 서울 매월 23일 까지 선착순 마감 60명
안동 매월 19일 까지 선착순 마감 30명
부산 매월 20일 까지 선착순 마감 50명

접수문의
서울 노원구 불교회관철학강의실 02)999-5551
안동 명륜동 안동시민회관강의실 054)851-5558
부산 사상구 불교철학대학강의실 051)328-5551

부산
· 여사원 모집(고졸이상)
· 컴퓨터, 맥캔토시 가능자
· 25세~35세까지